

# 새싹포커지 8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포커지 2014년 8월호

##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 8월 22일, 유아교육학과 제 3회 졸업식



지난 22일 우송예술회관에서 우송대학교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졸업식은 11시부터 시작이었지만 아침 열시쯤부터 선배님들이 오셔서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동기들,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받고, 12시에 우송관 506호에서 교수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교수님들의 조언과 덕담을 들을 수 있었다. 짧았던 만남의 시간이 지나고 교수님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으며 졸업식을 마무리 했다.

다음은 올해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졸업 소감과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1-1> 졸업식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정현 선배님

Q. 오늘 졸업하시는데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해둘 걸,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도 해볼 걸 하는 생각들이 졸업을 앞두니 아쉬움으로 남지만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 설레기도 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 대학생활 때 누릴 수 있는 거 다양하게 해보길 바라요. 전공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돼요. 전공 공부할 때 요점 정리 잘해두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거 같으니 정리하면서 열심히 하길 바랄 게요. 그리고 되돌아보니 학과에서 했던 일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니 참여할 수 있을 때 다양하게 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다영 선배님

Q. 오늘 졸업하시는데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 종강하는 날은 마냥 신나기도 하고 실감도 안 나고 그랬는데, 막상 졸업식을 하고나니 실감이 난다. 앞으로 취업 해서 일도 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배운 것을 제대로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해요.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교육과정 모두 잘 따라가면 확실히 얻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수업과 과제도 하는 동안에는 의문이 많아도 하고 나면 많이 배우고 발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배려하는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다운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맞이한 선배님들은 학사모를 던지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교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등 학교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즐겼다. 즐거우면서도 시원섭섭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선배님들을 보며 나도 몇 년 후엔 저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선배님들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는데 분항의 문제로 모든 인터뷰를 신지 못한 것이 아쉽다. 선배님들의 조언들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더욱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업 후 우송대 유아교육과를 빛내는 유치원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다.

# 우리들의 이야기

## 1학년, 유치원 봉사 활동을 가다.

7월 19일 마키루키꿈샘 유치원에서 원아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전시회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 전시회는 ‘숲’이라는 주제로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애니멀 스토리, 땅굴 체험, 곤충 체험 등 숲의 주제에 관련된 영역들로 오감을 자극할만한 활동들을 5~6개의 반으로 나누어 원아와 학부모들이 반을 이뤄 전시회에 참여하였고, 이 프로젝트 전시회에서 봉사한 도우미들은 각 반과 주방에 두 명씩 배치되어 담당 선생님을 돕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기회가 다시 온다면 참여할 마음이 있다.” 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유치원 봉사활동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만큼의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글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기에. 이번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직접 체험함으로써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왔을 것이다. 아직 가보지 못한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많은 경험들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 부산부터 전주까지-내일로 체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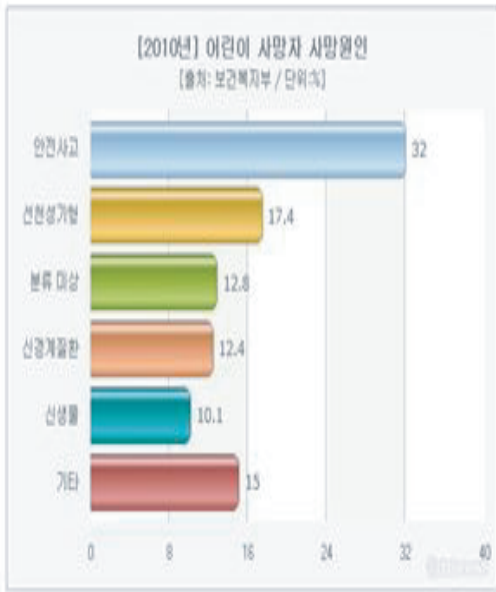
고3 때 작성한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학생이 되면 여행하기가 있었다.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친구들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6박 7일 내일로를 가게 되었다. 먼저 내일로란, KTX를 제외한 나머진 우리나라의 모든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패스이며 따로 좌석이 정해지지 않고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발권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 25세 이하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춘티켓이라 말할 수 있다. 8월 5일에 친구들과 함께 여수에서 출발하여 부산-안동-경주-서울-전주 총 5개의 지역을 가게 되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열차를 타면서 열차카페에 돛자리를 깔고 앉기도 하고 열차 맨 뒤 칸 출입구까지 가서 창밖을 보며 서 있기도 하였다. 기차 안에는 내일로 여행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우리와 똑같이 열차카페에 모여 있기도 하고 통로에 신문지를

깔고 앉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경주의 안압지이다. 안압지는 낮보다 밤에 가야 더욱더 장관을 이고 아름답다. 이때, 비가 쏟아져 고생하였지만 보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것이다. 부산은 바닷가라서 습하면서도 더워 관광지를 둘러보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주룩주룩 흘렀고 안동, 경주 그리고 전주는 비가 계속 쏟아져 우산을 써도 옷이 젖어 할 수 없이 그 상태로 구경하였다. 여름에 내일로를 다녀와서 가족 없이 우리 스스로 다녀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뜻깊었고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구경하고 있을 때 마을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고생하며 친구들끼리 다닌 여행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좋은 추억이 된다고 말씀 말씀하셨다. 내일로를 여행하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내일로가 끝난 지금은 내일로 추억을 되새기며 겨울에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지혜나눔

## 여름 시기의 유아안전사고

어린이 사망원인 1위, '안전사고'



<3-1> 어린이 사망사고의 빈도 유형

### 유치원 안전한 환경구성

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로는 1세미만 영아는 침대 등 가구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 (35.2%)가 가장 많았으며 1~3세 걸음마 시기에는 방·거실 등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13.5%), 4~6세 유아기에는 침대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 (19.8%)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블라인드 줄에 의한 질식사사고의 73.3%, 살충제·표백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의 63.%가 6세 이하에서 발생했으며, 창문·가구에 끼이거나 믹서기 등 주방용품에 의한 절단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4.6%는 1~3세 걸음마 시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익사사고의 5%정도는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영아의 경우 욕조는 물론 화장실 변기나 큰 물통에서도 익사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에 많이 놀러가는 수영장이나 바다와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어린이 사망자 1,888명의 사망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놀이를 비롯해 유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은 신체비율이 어른과 달라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에 빠졌을 때 쉽게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곳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권 내에서 물놀이 즐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리 끼우는 방식 튜브는 피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멍조끼나 튜브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튜브선택 시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모양의 튜브나 보행기 등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경우 유아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유아들에게는 어디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유형별 가정안전사고 현황)

(단위: %)

사고유형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충돌 충격	삼킴 흡입	베임 찢어짐	눌림 끼임
	36.8	28.1	8.6	6.5	5.7
고온영향	찔림	부패 변질	과도한 동작	이물 혼입	기타
	2.2	3.5	0.6	1.4	1.7
					4.9

<3-2> 어린이 사고유형별 가정안전사고 현황

# 우송유치원 소식

## 방학

우송유치원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종일반 방학을 맞이하였고,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만일반 방학을 맞이하여 8월 4일부터 22일까지는 종일반을 대상으로 한 특별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진행할 때의 반은 4~5세 혼합 2반으로 나누어 파란슬기반과 하늘누리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외식문화 체험하기

8월 첫째 주는 외식문화 체험하기를 주제로 활동하였다. 8월 5일에 우송대학교 안 '투스툼 플러스' 를 방문하여 자신이 직접 먹고 싶은 빙수를 선택한 후, 먹어보고, 외식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 8월 6일에 만 3세는 '오니기리와 이규동' 을 방문하여 점심을 먹었으며, 만 4~5세는 '비비고' 를 방문해 비빔밥을 먹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외식문화 체험하기 외에 요리활동도 진행하였다. 8월 7일에 만 3세인 아람반은 카나페 만들기를 해보았으며, 만 4세인 파란슬기반은 망고 스무디를 만들었다. 만 5세인 하늘누리반은 과일 화채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4-1> 파란슬기반이 망고스무디를 만들고 있다.

## 지역문화 체험하기



<4-2> 코인을 이용하여 간식을 구매하고 있다.

8월 둘째 주는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문화를 참여해보거나 놀이를 해보는 활동들을 하였다. 8월 11일은 솔브릿지대학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도 해보고, 솔브릿지대학 1층 식당에서 피자, 스파게티, 불고기 덮밥 등의 음식을 먹었다.

영화관체험을 주제로 하여 영화 표와 영화관 간판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으며, 영화관 안 스낵코너를 만들어 어떤 음식을 팔 건지 메뉴를 정해보는 활동도 하였다. 8월 13일은 코인을 만들어 직접영화 표와 간식을 사보는 활동을 하여 돈 개념을 알려주는 뜻깊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1층 가정관에서 영화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박명옥 김유리

김예솔 손혜원 박지원

강현아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유현영 박민영 박상옥 심영선

황세희 이가은 최효정 윤혜령

